

뉴스초점 - 광주시, 무안공항 명칭 변경 제안 왜?

민간공항 이전...군공항은 난항 시·도 갈등 속 명분·실리 찾기

또다른 이슈로 부상 할 수도

오는 2021년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앞두고 광주시가 전남도에 최근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공항 국내선의 이전 시기를 못박았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하면서 양 지역간 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거론되던 '군 공항 이전' 이 난항을 거듭하는 상황에 속에서도,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합의한 만큼 도시 브랜드 향상 및 시민 편의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나니 광주시도 민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명칭 변경에 대해 과거 전남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자칫 또다른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광주-무안공항 통합 및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개최, 공항 명칭 변경과 광주시민 공항 접근성 개선 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해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무안공항 통합 및 활성화 실무협의회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합의 이후 지난해 9월 구성, 최근까지 3차례 회

의를 열어 공항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협의회에는 양 시도 뿐 아니라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광주전남 연구원, 광주-전남 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전남문화관광재단, 광주컨벤션뷰로, 항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제안과 각 기관들의 요구사항, 일정 등을 수렴해 개최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무안공항 주 이용객의 70% 이상이 광주시민인 점과 도시 브랜드 및 공항 인지도 향상 차원에서 광주를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광주관광협회 건의 등을 감안,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도 무안군민의 60%가 공항 활성화를 위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할 필요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또 무안공항을 이용할 경우 기존 광주공항 접근성(편도 20분 이내)보다 시간(편도 1시간 이내)과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용 면제 ▲공항버스노선 연장 운행 ▲버스 준공영제 실시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광주시 제안이 국토 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데, 명

칭 변경의 경우 지난 2008년 전남도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 문제가 광주-전남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제시한 교통편·기반시설 확충,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광주시가 오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앞두고 군 공항 이전 계획이 담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무안공항 이용 시 예상되는 접근성 불편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실리를 추구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간공항 이전과 동전 양면 측면이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국방부의 소극적 자세와 광주시의 전남 시·군 간 갈등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8월 '상생발전과제'에 이름을 올리고도 여태껏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실무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시된 의견을 구체화하도록 광주시에 요청했다"면서 "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 소속 기관들의 제안과 일정 등을 조율한 뒤 조만간 회의를 개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억의 충장축제 ... 거리 퍼레이드



5일 오후 금남로에서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경연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기 침체' 광주, 대출금 연체율 전국서 가장 높다

6월 말 기준 0.42% ... 전국 평균 0.31% 크게 웃돌아

광주지역 대출금 연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최고를 기록해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했다.

6일 국회 정부위원회 무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신한·우리·SC제일·하나·씨티·국민) 대출금 연체율은 광주가 0.4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연체율은 전국 평균 0.31%를 훨씬 웃돌았고 서울(0.38%), 부산(0.36%) 보다도 높았다. 전남 연체율은 0.16%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최근 4년간 대출금 연체율은 2016년 0.65%→2017년 0.5%→2018년 0.39%→2019년 6월 말 0.42%를 기록했다. 전남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0.15%→0.19%→0.14%→0.16%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광주의 높은 대출금 연체율은 경기 침체로 부진한 업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 기업 연체율은 0.55%(전국

지역별 대출금 연체율 (단위:%)	
광주	0.42
서울	0.38
부산	0.36
대전	0.35
대구	0.31
경기	0.26
충남	0.21
전북	0.19
경남	0.18
경북	0.17
전남	0.16
인천	0.16
울산	0.15
강원	0.12
충북	0.1
세종	0.08

(자료:장병완 의원실)
평균 0.3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중소기업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자

영업자를 포함한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 연체율(0.54%)도 전국 최고로, 17개 시·도 평균(0.35%)을 상회했다.

올해 광주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은 1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출잔액 15조2000억원의 96.7%에 달하는 수치다. 광주 중소기업과 가계대출금은 2016년 10조9000억, 2017년 11조9000억, 2018년 13조8000억, 올해 14조7000억원으로 4년 새 34.8% 증가했다.

장 의원은 "광주지역 경기침체가 연체율 증가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함께 일괄적인 지원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장으로 나온 민심

검찰개혁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보수 정당·단체가 개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나란히 열리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앞서 오후 2시부터 반포대로 누에다리 남쪽으로 자리 잡고 앉아 사전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충돌하지 않도록 누에다리를 중심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해 두 단체를 갈라놓았다. 또 서초역부터 누에다리까지 인도와 반포대로 사이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해 서초역에서 하차해 성모병원 앞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집회 참

가자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막았다.

이에 맞서 우리공화당도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저녁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 성격이다. 태극기혁명을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대회'를, 일파파에국자연합(일파파)은 오후 2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애국가 총연합집회'를 진행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를 맡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 본부는 지난 4일 저녁부터 서울 중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효자로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